산림청 보도자료 APEC 2025 KOREA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5. 10. 2.(목)

가을철 안전 산행 꼭 지켜야 할 4가지!

- 산림청, 가을철 등산객 산행 안전수칙 준수 당부 -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국에서 산행을 즐기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산행 안전수칙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가을철 등산 인구가 증가하면서 추락, 실족, 탈진 등 각종 산악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산림청은 국민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산행 안전수칙 4가지(NEED)를 마련했다.

* 최근 5년간(19~23년) 산악사고는 연평균 10,681건 발생

첫 번째는 확인하는(Notice) 것으로 기상 상황과 산행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낙엽,낙석 등 미끄럼 사고에 주의한다.

두 번째는 준비하는(Equip) 것으로 계절과 기온 변화에 맞는 등산화, 여벌 옷, 스틱 등 필수 장비를 갖추고, 충분한 식수와 간식을 준비한다.

세 번째는 피하는(Escape) 것으로 무리한 산행은 피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안전하게 산행한다

마지막은 일찍 하산하는(Descent) 것으로 가을은 일몰 시간이 빨라 어두워지기 전에 하산해야 하므로, 오후에는 늦지 않게 하산을 시작한다.

정가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숲길관리실장 “가을철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저체온증이나 탈수의 위험이 높다.”라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충분한 수분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송준호 산림복지국장은 “가을 산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낙상이나 탈진 사고의 위험도 높은 계절이다.”라며, “즐거운 산행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산행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	책임자	과 장	예견희 (042-481-1812)
		담당자	사무관	장미순 (042-481-887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PEC 2025 KOREA 10.27.~11.1. 경주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